“법흥 대종사, 무상·무아 실천한 선지식”

7월 5일 법흥 스님 영결 · 다비식
송광사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
현묵 스님 “지혜종자로 다시 뵙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 법흥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5일 순천 송광사에 조계총림 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度然堂) 법흥(法興)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이 7월 5일 순천 송광사 승보전 앞마당에서 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평생을 참선과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청정 가풍을 실천해 온 법흥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기 위해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 스님들과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 부의장 도후 대종사, 원로의원 원각·법등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암도·밀운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유나 영선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화엄사 전 주지 덕문 스님, 중앙종회의원 일화·시공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과 이경연 송광사 신도회장을 포함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영결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영결법요, 헌향·헌다, 행장 소개,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등의 순서로 봉행됐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는 생멸을 넘은 자리에 계셨지만 인연 따라 헤어짐의 감회는 피할 수 없다. 거추장스런 환신을 벗고 해탈의 세계로 가셨으나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크다”면서 “스님께서는 자신과 법을 등불 삼아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신 수행자의 본보기셨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며 평생 불법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후학의 지남이 되고 있다”라고 애도했다.

조계총림 방장 현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님께서는 맑은 바람처럼 오셨고, 달그림자처럼 고요히 떠나셨다. 오고 감이 없는 자리에 계셨으나, 인연 속의 이별은 깊은 감회를 남긴다”면서 “적멸에 드신 지금,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사바에 오소서. 중생을 밝히는 지혜의 종자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추도사에서 “법흥 스님은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올곧이 수행의 길만 걸으셨다”면서 “불조의 혜명을 전하는 청풍납자들을 길러내신 그 모든 가르침은 곧 스님의 위대한 불사였다. 이제는 이승의 인연을 마치시고, 무애자재한 길로 나아가셨다”고 추모했다.

재가불자를 대표해 이경연 조계총림 송광사 신도회장은 조사에서 “스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로만 알았다. 차디찬 겨울 사천왕제 법회에서도 정성으로 축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고 추모하며 울먹였다.

문도 대표로는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인사말을 전했다. 지원 스님은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생에 다시 뵙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헌화는 문도 스님들을 시작으로 원로의원 보선·도후·밀운·암도 대종사, 중앙종회의원 진화·시공·일화 스님, 송광사 교역직 스님들, 말사 주지 및 비구·비구니 스님, 신도 대표들이 차례로 참여해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인로왕번과 오방번을 앞세우고 법주, 향로, 위패, 만장을 동반한 장엄한 행렬 속에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점화되어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은 장엄한 불꽃 속에 회향됐다.

한편, 법흥 대종사의 49재는 7월 7일 초재(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14일(장흥 천관사), 21일(부산 문수사), 28일(부산 문수사), 8월 4일(부산 문수사), 8월 11일(고성 보타암), 8월 18일(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엄수된다.

법흥 대종사는 1931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1959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수십 년간 수행과 후학 지도에 매진하며 회주, 조계종 원로의원 등 종단 중책을 역임했다. 생애 동안 계·정·혜 삼학의 실천과 자력 해탈, 참선 중심의 청정 가풍을 설파하며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긴 선지식이었다.

세종 광제사, 시민 선명상 축제 개막

7월 6일 개막식…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광제사,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하는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개막식이 7월 6일 광제사 경내 체험관 다목적홀과 대웅보전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주간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종 시민들에게 깊은 쉼과 울림을 선사한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광제사 주지 현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 행정도시이지만, 마음을 쉴 곳은 많지 않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선명상이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개막식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시민 100여 명이 사찰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윤달 맞아 생전예수재 입재

7월 5일 대적광전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불기 2569년 을사년 윤달을 맞아 7월 5일 대적광전에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혜일 스님은 법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인연이지만 이생에서 지은 업이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며 “인과는 명확해 선은 복을 낳고 악은 과보를 부른다”고 설했다. 이어 “극락왕생은 단순한 기도로 보장되지 않는다. 예수제 같은 재의식을 계기로 업장을 소멸하고 아미타부처님을 염송하며 수행해야 한다”며 정진과 염불을 당부했다.

해인사는 윤달에 예수제와 백중일정이 겹치는 올해 〈금강경〉을 독경하고 백중 막재에 〈아미타경〉 독경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주 대종사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금산사, 월주 스님 4주기 추모다례


7월 7일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17·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매진하며 동체대비를 실천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행장 소개에 앞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적멸의 모습을 나투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금방이라도 만월당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희 상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일어난다”며 “정법의 도량을 세우고, 종단의 중심을 바로잡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드리운 그 모든 자취가 바로 보살행으로 피어난 꽃이었다”고 추모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큰스님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진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며 “정법을 어기지 말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얀마에서의 봉사활동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일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대종사가 입적하신 지 4년이 지났지만 큰스님께서 보여주셨던 보살행원의 삶은 지금까지도 저희 불자들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며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보현행원과 자비행을 받들어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스님께서는 요익중생으로 중생의 아픔을 살피는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현해오셨다. 우리도 큰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합동천도재 봉행

7월 6일 지원금 전달도



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7월 6일 ‘도솔암 제8차 1029 합동천도재 16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봉행된 ‘도솔암 합동천도재’는 2023년 5월 21일 입재해 2026년 3월 8일까지 1029일간 지장기도가 진행되며 기도기간에는 매 49일마다 21회에 걸쳐 49재가 봉행된다.

이날 도솔암 사부대중과 감원 성본 스님은 장학금과 경북지역 산불재난 지원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성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들의 소중한 정성을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할 수 있어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해 용문사, 청소년 마음치유 돕는다

7월 3일 남해경찰서와 MOU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와 남해경찰서(서장 박지성)는 7월 3일 용문사 법당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테라피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교 폭력 가·피해 청소년, 소년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차담, 발우공양, 걷기 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태화선원 ‘그린트러스트’ 설립

개원 3주년 맞아…사찰림 보호 목적



개원 3주년을 맞은 울산 태화선원(주지 명본 스님)이 불법 홍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림 연구 보호 단체 ‘울산그린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등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화선원은 7월 2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생전예수재 입재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명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개원 3주년을 맞아 ‘울산그린트러스트’를 설립했다”며 “맑은 불심으로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그린트러스트’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찰림 활용 및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이와 함께 법회에서는 설장환 신도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설 신도회장은 “무거운 직책이지만 태화선원의 발전과 신도들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실천하며 신도들과 함께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원을 기념한 자비나눔도 이어졌다. 태화선원은 이날 자비의 쌀 10kg 200포를 통도사자비원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쌀은 통도사자비원,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중구시니어클럽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흥 능가사, ‘일요가족법회’ 첫발

7월 6일 배우 강부자 초청



전남 고흥 능가사(주지 진허 스님)가 매월 정기적인 일요가족법회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능가사는 7월 6일 대웅전에서 신도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첫 일요법회인 ‘강부자 초청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그동안 재일(齋日) 위주로 열어왔던 법회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에 봉행함으로써, 신도와 주민 모두 더 편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특히 첫 초청 법사로 연기자 강부자 씨를 초청해 대중적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주지 진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온 강부자 선생님을 초청해 첫 일요법회를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요가족법회를 통해 누구나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선 강부자 씨는 이날 신앙과 인생, 연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저는 40년 가까이 비구니 스님들 계신 절을 다녔고, 전국 어디든 부처님 계신 곳이라면 기도하러 간다”고 말했다. 이어 “능가사 법회에 자주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을 널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능가사는 앞으로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다양한 초청 강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가족법회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삼불암, 제2회 호국영령 영산대재

익산지역 보훈단체 등 동참



익산 삼불암(회주 심월 스님,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28일 경내 호국당 앞 특별 법단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영령 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서 회주 심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덕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매년 6월에 호국 영산대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지 법정 스님은 “호국영령 영산대재에 엄숙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